



총발연 제6회 로컬푸드연구회 워크숍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운동

2011. 10. 7.

유 정 규 (지역재단, 경제학박사)

발제 순서

- 1 머리말 : 농업·농촌의 당면과제
-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 3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과 주요 논의
-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과 마을만들기 연계
- 5 맺음말 : 어떻게 할 것인가

1

머리말 : 농업·농촌의 당면과제

1. 머리말 : 농업·농촌의 당면과제

● 농업·농촌 내부적 입장에서 본 우리농업·농촌의 당면과제

→ **사람**의 공동화, **농지**의 공동화, **지역**의 공동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 비농업부문과의 비교에 의한 우리농업·농촌의 당면과제

농업문제 : 산업으로서 농업부문의 저생산성

농촌문제 : 지역으로서 농촌부문의 저개발

농민문제 : 경제활동주체로서 농민의 저소득

→ 해결방안 모색 : **지역농업살리기, 농촌마을가꾸기**

● 국제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우리농업·농촌의 당면과제

→ UR, WTO, DDA로 이어지는 세계화·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부적응

한-칠레, 한-미 FTA에 이은 동시다발적 FTA체결 움직임 → **지역의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좌절**

우리농업·농촌의 당면과제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지역역량 강화, 지역주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형성,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자기결정력 강화**

→ **마을만들기** :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력을 형성하고 강화해 가는 지속적 과정

→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 : 자기결정 하에서 지역순환형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부분

∴ **로컬푸드운동은 마을만들기와 연계 하에 추진되어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1) 농업·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 농산물가격지지 철폐, 수입농산물과의 경쟁격화, 도농간소득격차 확대

- 도농간 소득격차 : '90) 97.4% → '95) 95.1% → '00) 80.6% → '05) 78.2% → '09) 66.0%
- 농가부채/소득비중 : '90) 4,734/11,026 → '00) 20,207/23,072 → '05) 27,210/25,778 → '09) 26,268/27,307천원

○ 교육·의료 등 열악한 생활여건 → 농가·촌인구감소 → 생활여건 악화의 악순환

- 농가인구비중 : '90) 15.5% → '95) 10.8% → '00) 8.6% → '05) 7.1% → '10) 6.4%
- 농촌인구비중 : '90) 25.9% → '95) 21.2% → '00) 20.2% → '05) 18.1% → '10) 18.0%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심화 → 지역의 유지, 존속 자체를 위협

- 농촌인구의 고령화 : '05) 65세 이상 18.6%, '10) 농가인구고령화 31.8% > [전체인구 고령화]11.3%
- 인구 2000명 미만 면(面) 수 : ('85) 9개 → ('90) 30개 → ('00) 170개 → ('05) 287개 → ('15) 558개 (전망)
- 지역의 발전을 주동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부 인적구성이 붕괴 → 내부로부터의 발전동력 기대하기 곤란

○ 지역의 자각, 귀농·귀촌의 증가 → 새로운 주체형성과 마을만들기

- 지자체의 시행, 상향식지역개발정책 추진 → 지역의 각성 →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예: 강원도, 진안, 완주)
- 귀농·귀촌인의 증가('90-'10년 : 38,446가구) : ('01) 880가구 → ('10) 4,067가구 → 새로운 주체형성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2) 마을만들기사업의 흐름과 최근의 경향 (1)

○ 마을만들기사업의 경과

- 자자체 추진사업 : [광역]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1999), [기초]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사업(2001)로 부터 개시
- 중앙정부 추진사업 : 형식적 상향식(정주권개발) → 실질적 상향식(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구분		2009년 말	비고
중앙정부	녹색농촌체험마을	442 개소	2002년 시작/2017년까지 850개소 지정 예정
	전통테마마을	170 개소	2002년 시작/2009년 사업종료
	산촌생태마을	204 개소	1995년 시작/2012년까지 300개소 지정 예정
	어촌체험마을	112 개소	1994년 시작/2013년까지 122개소 지정예정
	아름마을	23 개소	2001년 시작/2003년 사업 중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00여개	2004년부터 시작/2017년까지 1000개권역(거점면소재지개발 포함)
지자체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매년 30개소	1999년부터 시작, 초기에는 매년 15개소, 2006년부터 30개소로 확대
	어촌마을가꾸기 (진안군)	-	2001년부터 시작, 읍면별 1개소→초기마을 졸업 후 새로운 마을 추가
	파워빌리지사업 (완주군)	-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만들기/지역개발의 최근 경향

- 형식적 상향식 → 실질적 (?)상향식 : 2002년 이후, **주민참여 · 지역역량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로컬푸드/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의 결합**
- **지역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진안(어촌마을가꾸기), 완주(파워빌리지사업) 등
- **민간주도의 네트워크 강화** : 전국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결성 (월1회 모임)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2) 마을만들기사업의 흐름과 최근의 경향 (2)

○ 중앙부처간 마을만들기사업의 경쟁적 추진 : 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위한 각 부처별의 업무내역〉

부 처	사업내역
국토부	- 살기 좋은 도시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도시계획, 주거복지, 대중교통, 건축 등 지원정책 - 여촌생활공간 개선, 연안해운·수산 등 지원정책
농식품부	- 살기 좋은 농촌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도농복합생활공간, 지역특화브랜 등 지원
문화관광부	-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생활공간 문화 및 문화S/W사업, 관광 등 지원
환경부	- 생태마을 등 환경분야 저역개발 및 지원정책
교과부	- 교육공동체, 친화적 교육환경조성 등 지원정책
보건복지부	- 복지 의료여건 개선,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지경부	- 산업단지 환경 재정비(리모델링) 등 지원정책
기재부	- 부처별 소관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 조정

○ 기초생활권정책/포괄보조사업의 시행과 마을만들기사업

- 긍정적 측면 : 지역주도의 창의적인 지역개발/마을만들기를 위한 **형식적 토대 마련**
 지역개발/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역의 책임 증가**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증대 인식**
- 부정적 측면 : 중앙부처별 국토공간 분할에 따른 **지역적 차별성이 약화**
 지역역량 부족으로 인한 **단위사업의 대형화** → 창의적인 사업발굴 난망
주민참여의 축소, 왜곡 가능성 증가 ← 기초생활권정책의 폐단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3) 기존 마을만들기의 한계와 새로운 이념의 설정

● 기존 마을만들기/지역개발사업의 한계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통합적 추진 미미 → 단위사업별 추진 → 정책목표간, 실행수단간의 충돌발생
- 지역주체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정책사업 공급** → 사업의 실효성문제와 유희화 초래
- 공간적 단위 : 마을, 권역중심 → 지역자원의 종합적 활용, 시너지효과 제고의 한계
- **하드웨어 중심** →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 문제 대두 : 지역역량문제와 연결 → 사업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하드웨어 중심적인 성격이 강함
- **성과의 외부유출** →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곤란, 성공가능성의 저하
-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미흡** → 형식적 상향식에 안주 : 최근 기초생활권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시행 → 형식적 상향식 마저도 약화시키고 있음

● 마을만들기/지역개발의 기본이념 설정 : 지역 스스로의 자기결정력 증대

-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지역개발: 생활환경정비,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구축, 소득기반시설 확보 등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공동체복원, 하드웨어 운영능력 제고 등
-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지역개발'은 하드웨어측면에 집중해 왔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마을만들기란 ?

-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기결정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련의 지속적 과정**
- **지역주체설정, 지역역량강화 : 교육과 훈련+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강화**
- **생산경제 영역과 생활경제 영역의 동시적·통합적 추구 :**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과 전략

4) 마을만들기의 기본전략

● 기존 마을만들기/지역개발전략 : 외부자원활용 → 외부의존형 마을만들기/지역개발

- 기존의 마을만들기/지역개발은 대규모투자과 고효율을 추구하는 전략 → 외부로부터 자원유치/유입을 전제함
- 외부자원의 유입 → 개발성과(이익)의 외부유출이 불가피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 : 실패 가능성 증대
- 개발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한적 → 지역의 환경, 역사, 문화의 파괴 및 대체 →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고갈을 초래

● 마을만들기/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전통적 접근 : 하드웨어의 구축 측면을 중시 → 발전의 동력을 외부에서 조달
- 새로운 접근 :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 측면을 강조 → 지역자원의 발굴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며, 지역주체의 역량개발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 : 주민참여형 지역만들기

● 마을만들기/지역개발의 기본전략, 정책방향 → (신)내발적발전전략

- 기본전략 : 개발의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하며, 개발의 성과가 지역내부에 귀속되어야 함
→ 지역 내에 동원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의 제한될 경우, 외부자원의 활용은 불가피
→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결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외부자원활용 : 신내발적발전전략
- 정책방향 :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시스템 구축 → 로컬푸드의 검토
→ 지역 내 각 주체가 연대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함
→ 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적인 노력을 중시, ② 지역주민의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③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경제 확산, 농촌자원의 유효 활용, ④ 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3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1) 로컬푸드운동의 개념

○ 로컬푸드(local food)

- 지역에서 지역주체에 의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하에 생산, 가공, 유통, 조리된 농식품
- 지역외부에서 소비되거나 가공, 유통, 조리되는 농식품의 경우, 원재료의 지역성과 생산자와의 신뢰확보가 관건
 - 로컬푸드의 특성 : 지역성(지역 혹은 지역주체에 의한),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한), 신뢰성(소비자와 생산자)
 - 지역에서 생산-유통-가공-소비되는 먹거리 : 지역내 다양한주체들 간의 협력(특히 환경, 보건 부문)과 연대를 통한 먹거리 자기결정권과 지역민의 건강/지역환경 건강성 확보, 지역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 마을만들기/지역만들기/지역개발 등과 밀접하게 연관

○ 농식품체계 (푸드시스템 food system)

- 농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및 폐기단계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과 주체들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틀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sustainable and localized food system)

- 지속가능성과 지역순환, 지역연계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가치지향적 개념
-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농식품체계를 좀 더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표명: 현재의 글로벌화되고 산업화된 현대 농식품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표명된 것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2) 로컬푸드운동의 출현배경

● 세계식량체계의 취약성과 문제점 : 지역성, 관계성과 신뢰성의 파괴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익명성 : 먹을거리의 안정성 위협 → 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산자의 건강까지 위협
-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 환경오염초래 → 지속가능성 위협
- 지역식량공급의 불안정 초래 : 농업생산이 세계시장의 요구에 따라 좌우됨 → 지역의 요구가 무시됨
- 가족농의 붕괴 : 세계시장에 취약한 계층은 몰락 → 가족농 중심의 개도국 농업의 몰락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증가 → 토양황폐화, 지하수오염
- 소농의 위상 저하와 농기업에 대한 농민의 종속을 심화 : 농업노동자의 양산 → 빈곤층의 증가
- 지역농업과 지역의 음식문화를 파괴함 : 지역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킴 → 지역의 공동화 초래

● 위기에 처한 소농, 가족농의 대응

- 세계식량체계에 대한 소농의 집단적(조합결성)적 대응과 지역시민단체, 지역대학과의 연대
-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 Agriculture : CSA), 농민시장, 직거래운동 등의 확산

● 소비자의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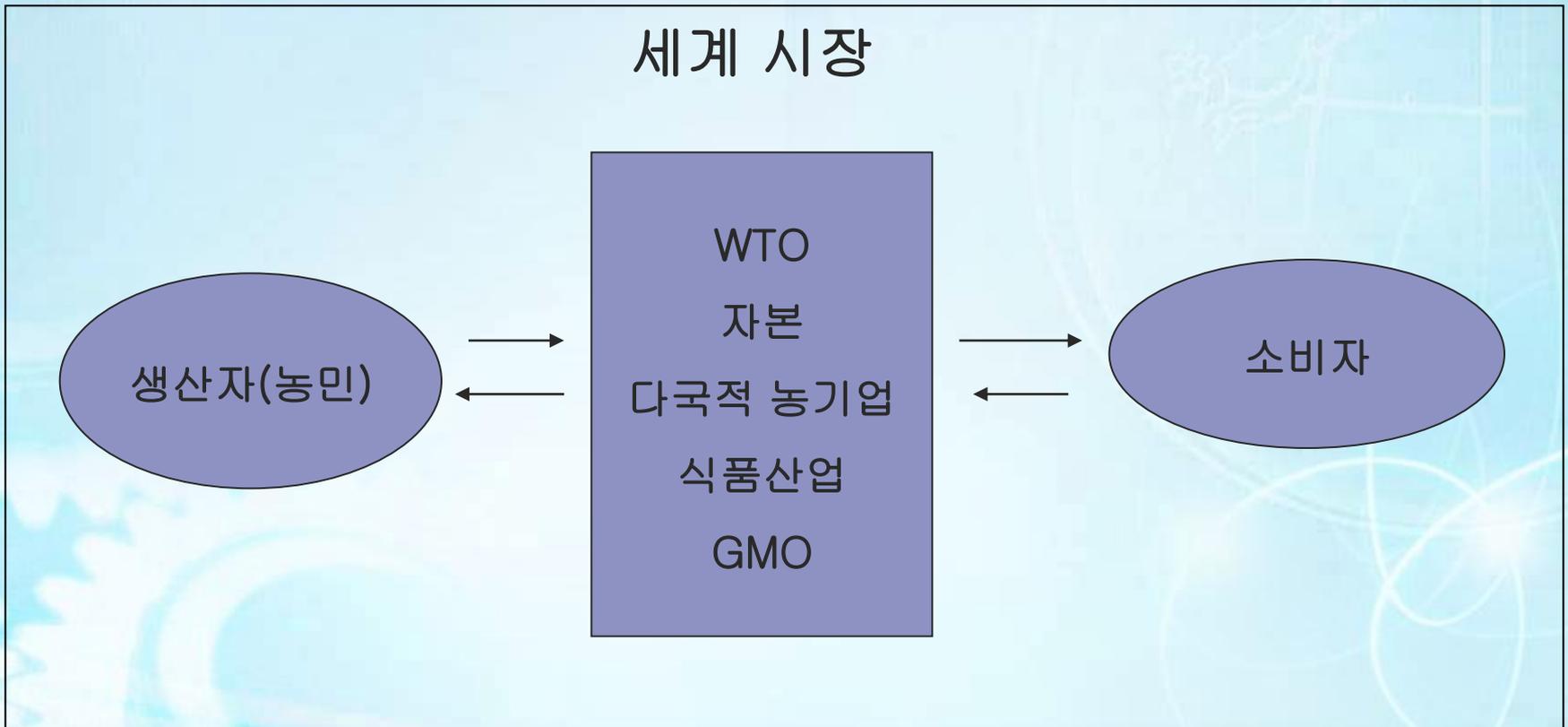
- 소비자의 교육수준 향상, 글로벌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증가

- 지역식량체계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제고, 시민/소비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반응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세계식량체계의 구성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세계식량체계의 특징

- ◇ 농업에 공장의 효율성 도입: 경쟁을 중시, 산업형 농업에 기반
- ◇ 세계시장을 위한 먹거리 생산, 먹거리의 세계 유통
- ◇ 자본(농기업, 식품산업, 곡물메이저)들이 주요 행위자
-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부재 및 피드백 단절
-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드의 확산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3) 로컬푸드 운동의 의의 (1)

○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고취함

- 소농이 자신의 생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푸드달러** 중 농민의 몫을 증대시킴
- 소비자와 관계 속에서 친환경적 영농을 가능케 함

○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공급을 조장함

- 생산자 상호간의 경쟁억제 → 농약, 비료의 사용을 줄이며, 수확과 이동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신선도 유지
- 소비자가 먹거리의 생산자와 생산과정을 인지할 수 있음

○ 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함

- 친환경적 영농이 가능하며, **푸드마일(food mile)**을 단축함 → 에너지절감 →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 포장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역농업에 재활용할 수 있음 : 예, 일본 레인보우플랜(나가노市)

○ 지역식량보장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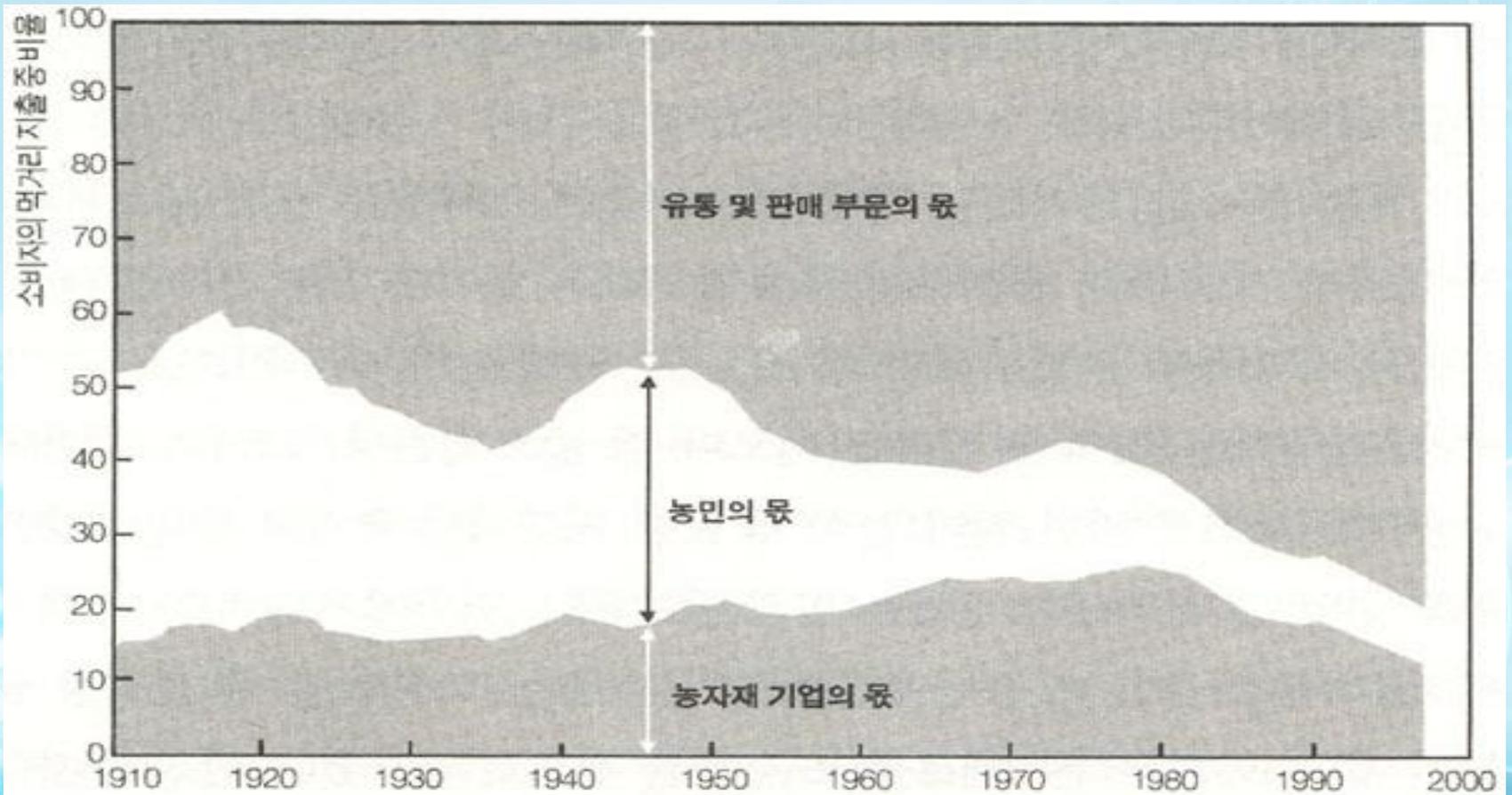
-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의 필요에 의한 생산을 중시 → 지역자급율을 높임

○ 수동적인 소비자의 주체적인 인식 제고

- 의식있고 책임있는 먹을 거리 소비를 조장하며, 공공부문(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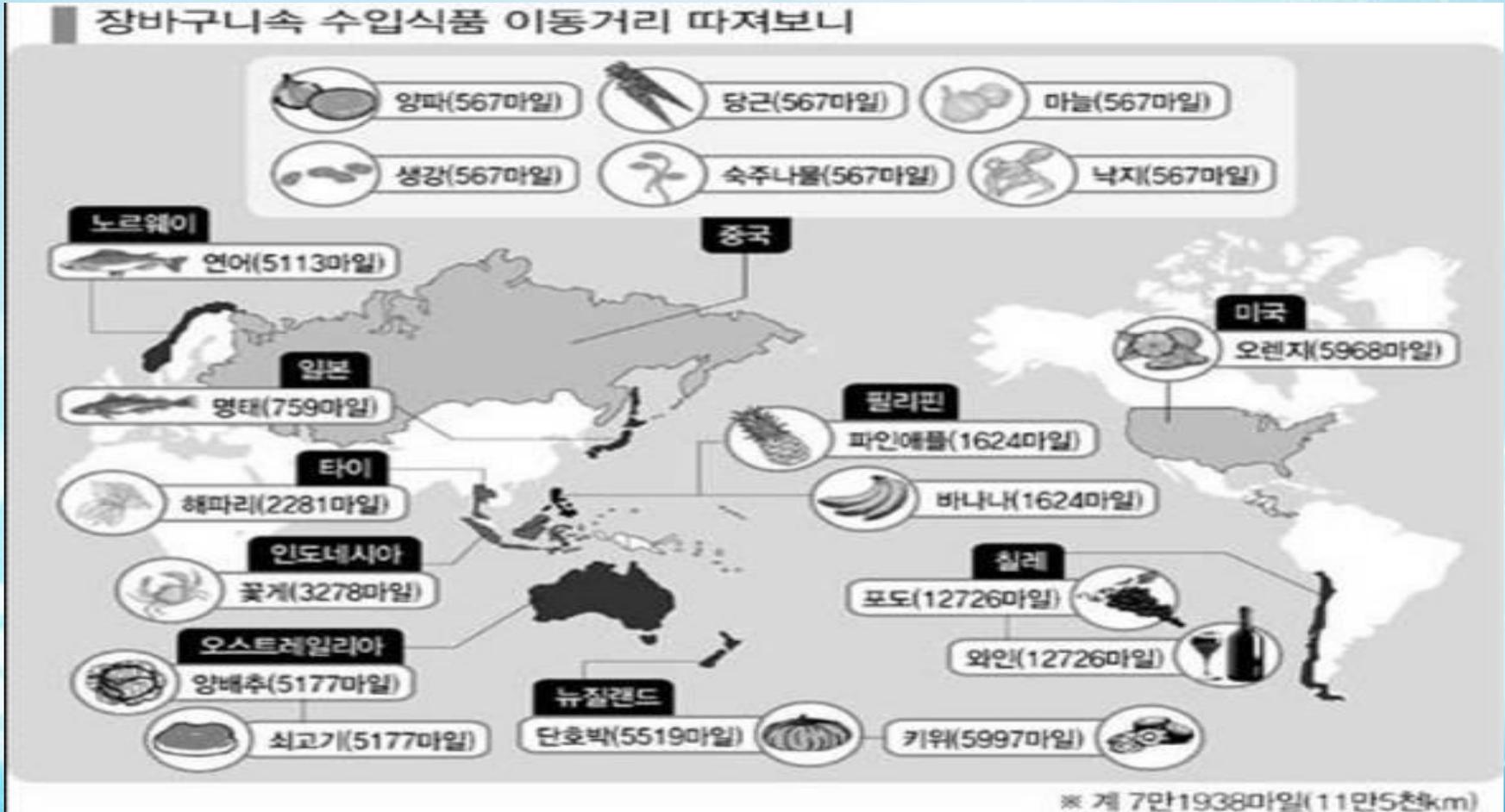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세계식량체제와 푸드달리 중 농민 몫의 저하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푸드마일 : 먹을거리 이동거리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3) 로컬푸드 운동의 의의 (2)

○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

- 로컬푸드는 농민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며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지역에서 순환되게 함
- 로컬푸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지역비즈니스 증대에 기여함
- 로컬푸드에 지불한 10파운드는 지역에 24파운드의 가치, 슈퍼마켓에 지불한 10파운드는 지역에 14파운드의 가치를 가져 오는 것으로 평가됨 : 런던 New Economic Foundation

○ 다른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침

- 지역식량운동 → food democracy 실현에 기여함
- 지역텃밭에서의 만남 → 지역사회갈등의 해결 기회 조성
- 지역식량운동 → 사회운동의 활성화

○ 음식을 통한 사회정의에 기여함

-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에 대한 대우와 존경 분위기 조성
- 먹을거리에 대한 공정한 거래(fair trade)를 증진
-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4)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논리/관점 (1)

●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다양한 관점

관점	그룹	특징
신유통론적 관점	농업계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유통방식, 유통구조 - 경제적 관점에서 유통의 효율성 검토 - 기존 유통대비 지역유통체계의 효율성 문제 제기
원산지정보적 관점	식품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in of food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 제공) - 식품업계 · 지자체의 관심, 홍보 - 지역적 경쟁우위의 지적재산권 보장, 지리적 표시제
buy local적 관점	정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의식적 소비행위 강조(민간영역) - 시민캠페인 성격 + 지역사회 · 농민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 강조
푸드시스템적 관점	사회운동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 영양 · 보건적 관점 - 식량위기 · 식량안보 관점 : 자결권, 자급권 관점 - 환경적 관점 : 지역자원의 스마트한 효율적 활용(지역순환)
자연연계적 관점	지자체, 사회적경제 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시스템 주체 · 단계간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커뮤니티 활성화
농촌개발적 관점	농업계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개발거버넌스 구축(역량강화), 6차산업화, 다기능적 농업·농촌, 혁신(사회관계, 생산-가공-유통), 다부문적·부문간 접근

[자료 : 허남혁(2011), 농정연구센터 126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3. 로컬푸드운동의 배경과 주요논리

4)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논리/관점 (2)

●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AFN : Alternative Food Network)의 4가지 범주

범주	설명	사례
소비자가 곧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소비자가 목거리를 기르거나 생산하는 프로그램 -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 - 상업적 지향의 범위는 다양한 - 생산물은 보통 지역에서 판매되지만, 특정집단(저소득층, 소수민족)을 겨냥할 수도 있음 	지역공동텃밭 지역사회먹거리협동조합 (생협) 지역사회 먹거리 자금 프로젝트
생산자-소비자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과 소비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농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공유 	지역사회지원형 농업(CSA)
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나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직접 대면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팔 수 있음 	농민장터, 농민상점 이동식 먹거리 매장 생산자협동조합
특산물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가 기존의 유통망을 통하는 것 보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 -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특산물을 판매하며, 관광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온라인 판매 특산물 도매 관광객 유치

[자료 : Vann et al(2006), 허남혁(2011)에서 재인용]

* AFN : 세계식량체계에 대응하여 등장한 다양한 시도들을 총칭함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과 마을만들기 연계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과 마을만들기 연계

1) 로컬푸드의 편익 (1)

경제적 편익

- 농식품 생산(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및 광역경제를 지원
- 이러한 점에서 낙후 농촌지역, 도시근교지역, 산간지역, 취약지역 등에서 가장 중요함
- 지역 잠재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
-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소득이 지출되는 경우 그 지출액이 일반적 소비패턴과 비교했을 때 지역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강력한 지역소득유발 승수효과 창출(3배)
-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낙후지역의 경제적 회복, 지역 생산자의 소득증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 기업가정신의 회복, 로컬시장의 활성화, 고용 증대, 로컬 서비스 공급의 비용절감과 유지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됨

환경적 편익

-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운송 외부성(푸드마일) 감축, 유기폐기물, 잔류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순환체계 창출기회를 통해 환경적 편익을 가져옴
- 수입산물에 비해 로컬푸드 산물은 탄소발자국이 작음
- 생산자들이 독자적인 판매처를 소비자들의 기대와 연결시킬 가능성이 더 큼: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유기농 생산, 환경서비스 등을 고려하게 됨
- 매우 소량으로 생산되거나 특수한 풍미를 지닌 산물의 판매처를 창출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멸종 위기의 과일/채소/가축 품종의 개발을 증진함
- 유기폐기물 관리, 물관리, 생산잔류물 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등과 같은 순환 경제체계와 연결될 수 있음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 and 마을만들기 연계

1) 로컬푸드의 편익 (2)

사회적 편익

- 짧은 유통채널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호작용 증대와 상호지식 및 이해의 증진을 가져옴: 생산자의 개인적 지식을 통해 신뢰기반의 관계를 창출하고, 소비자에 의한 산물의 추적이 용이해지며, 식량주권의 기본적 수준을 제공해줌
- 전통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계절적이거나 다른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는 로컬 산물을 제공하게 되면 사회적 결속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행위를 장려하게 됨. 직판장이나 노천장터 같은 로컬 산물의 판매처들은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들에게 사회적·직업적 포용 과정에 기여함
-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맛 좋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음
- 로컬 산물의 판매를 통한 신선한 산물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은 음식의 다양화와 식품의 유기적 특성의 보존을 통해 공공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지역 식량생산능력의 유지를 통해 전지구적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달성됨
- 대도시 지역들에서는 식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과 도시의 농식품 생산 확대가 필요함

출처: EU Committee of the Regions(2011), 허남협(2011)에서 재인용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과 마을만들기 연계

2) 기존 논의의 한계

○ 먹거리 안전성 확보 → 로컬푸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달

- 세계식량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탈지역성, 익명성이 강화되고, 관계성과 신뢰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논의의 핵심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 소비자 주권의 강조로부터 논의가 출발
- 한계 : 안정성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이 생산자에게만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 local 안전한 먹거리 확보의 전제 : 올바른 생산과 바람직한 소비의 정립, 책임과 비용의 분담이 필요

○ 농산물유통구조의 개편 →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합리화 도모

- 기존 농식품 유통시스템의 한계 : 생산자(낮은 수취가격)와 소비자(높은 구입가격)의 공동 희생을 초래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 고조 : 로컬푸드 논의(예: 직거래)의 핵심과제화
- 한계 : 지역단위 유통의 약점(거래비용, 정보전달, 지역외 생산품소비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역 내 농산물은 전부 '착한 농산물인가' 합리적 유통을 가장한 주체의 배제문제는 ?

○ 소농, 가족농 보호 → 로컬푸드를 통한 소농, 가족농의 지속성 확보

- 로컬푸드를 통한 소농, 가족농과 가족농의 지속성 확보여부는 그 비율이나 량(생산자, 생산량)에 좌우될 것임
 - 비율과 절대량이 제한적일 경우 : 로컬푸드가 유효한 대안이 될 것임(예: 일본의 미찌노에키)
 -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 전체농가의 65%이상이 1ha 미만
- 한계 :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소농, 가족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일반화시킬 수 있음
 -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 개편 요구가 필요함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과 마을만들기 연계

3)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 (1)

○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로컬푸드 접근 → 농촌지역활성화의 계기마련

- (기업경영 : 이동가능한 자원(사람, 물건, 돈,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생산체제를 기초로 하는데 반해) 지역경영이란 이동불가능한 지역자원(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시설자원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異種간 교류나 제휴(농업+가공, 농업+판매, 농업+관광 등)를 통해 더 많은 고객창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그 효과를 지역전체로 파급, 확산시켜 새로운 사업이나 고용을 창출하는 것
- 古家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커뮤니티비즈니스, 6차 산업화, EU의 LEADER 프로그램 등등

○ 농업 · 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 → 우호적인 농업 · 농촌정책 환경조성

- 로컬푸드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면적인 교류, 소통 확대
- 소비자의 바람직한 소비유도+농업 · 농촌에 대한 이해제고 → 우호적인 농정수립과 추진의 응원군

○ 도시민과의 교감 확대 → 농촌내부의 변화와 혁신유도

- 농식품체계 내 여러주체들간의 소통강화 →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산, 거래방식의 고안과 추진이 가능해 짐
- 농촌 내부의 영역별 주체들간의 소통강화 → 농업생산자들간의 생산, 유통혁신 노력을 촉발
- 기술적 혁신에서 사회적 혁신으로의 확장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 and 마을만들기 연계

3)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 (2)

○ 지역농업조직화 관점에서의 로컬푸드 접근 → 소농, 가족농유지의 구체적 대안

- 농촌지역활성화의 토대로서 **지역농업살리기의** 의미 : 지역사회의 인적구성, 생산액 비중만 고려한다면 농업의 위치는 중심적 위치에서 부차적 위치로 약화 .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농촌지역사회의 중심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업만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농업발전 없이 지역활성화는 불가능
- **지역농업조직화**는 객관적 공통성과 주관적 통일성을 갖춘 **일정지역 전체가 하나의 경영단위를 이루는 것**
→ 소농, 가족농의 **지속성확보+생산주체 확보의** 유용한 계기 마련
→ 로컬푸드의 지향을 소농, 가족농 지원을 넘어, 지역농업조직화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화 논리 구축

- 세계화의 논리 : 효율성 제일주의 →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만 존재**
- 지방화의 논리 : **경쟁과 협력의 원리가 공존함**
→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화의 논리가 필요함**
- ‘지방화’의 구체적 실천시스템으로써 **지역순환형경제체제**의 의의 : 생산과 소비가 일정한 지역내에서 상호결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시스템 ← 로컬푸드 : 지역순환경제체제의 관점(세계화에 대응으로서 지방화, 지역순환사회 건설,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절감,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서 **먹을거리가 지역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합리적·효율적으로 순환되는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의도적인 활동**

4. 로컬푸드 논의의 확장 and 마을만들기 연계

4) 로컬푸드 and 마을만들기의 연계

○ 로컬푸드 and 마을만들기의 공통점 추출

- 추진주체의 공통점 : 지역주도성을 토대로 한 외부의 지원
- 활동공간의 공통점 : 지역을 토대로 한 외부로의 확장
- 주체역량의 공통점 : 자기결정력을 전제로 한 주체적인 외부자원 활용
- 추진목표의 공통점 : (농촌)지역의 가치 보전 → 지역(농업)조직화 → 지역활성화

○ 마을만들기의 진화 and 로컬푸드의 결합 : 진안사례, 완주사례

- 마을만들기 추진시스템 구축 후 로컬푸드 접목(진안)
→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기/수단으로서 로컬푸드
- 마을만들기 and 로컬푸드의 동시적 추진(완주)
→ 마을만들기 and 로컬푸드의 병렬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마을만들기/로컬푸드의 연계를 위한 행정 시스템의 구축

-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추진시스템 구축
→ 마중물로서 행정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잔존
- 민간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and 대책 강구

5

맺음말 : 어떻게 할 것인가
- 각 주체의 역할 -

지역재단은
지역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합니다

전화 : 02-585-7731, 팩스 : 02-585-7792

홈페이지 : www.krdf.or.kr